1. 우리공사 및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를 기술하고, 우리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세요.

‘호기심에서 진로까지’

어릴 적 저는, 전기를 사용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전기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과학시간에 ‘전기’에 대해 얕게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기가 지금은 제 인생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플레밍의 왼손법칙과 같은 전기이론이 재미있고 신기해 전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기분야의 명장이 되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따라 고등학교도 전기과로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배운 전공과목은 중학생 때 배운 전기와는 사뭇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며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꿈을 좇아 열심히 전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기과에 재학하며 한국전력공사는 막연한 꿈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 참석하며 이정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제 꿈인 ‘전기분야의 명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꿈에 한발자국 가까워질 때 한국전력공사의 미션과 비전에 두발자국 가까워진다 자신합니다.

2. 지원 분야와 관련된 우리공사의 주요 사업 중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십시오. (본인의 직무역량 및 강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직무역량 및 강점이 잘 나타난 사례를 포함하여 기술)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사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송변전 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지역인 남동부지역에서 소비지역인 수도권으로 전력수송을 위한 송전망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전공과목으로 내선공사, 전력설비 등을 배웠습니다. 교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도 힘써 1학년 때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일찍 취득한 덕에 그 뒤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공지식을 알려주면서 저 또한 전공지식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끈기가 제 강점입니다. 저는 블로그에 노래가사를 번역해 올리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퇴고, 다시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가며 완벽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제 전공지식과 끈기 있는 성격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3.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당시 상황과 오해의 원인, 해결 노력, 결과를 포함하여 기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약 1개월간 학원의 전기기능사 실기반 보조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조강사로서 실기 재료 준비, 실기 회로 동작검사, 오동작 회로 수정 등 실기반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강사님께서 바쁘실 때는 제가 직접 회로를 설명하며 수강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강생들 중에는 제 아버지 연배인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저도, 배우는 수강생들도 의사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 드리고, 어려운 것은 없는지 여쭤보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어려 신뢰하지 않던 수강생들은 제 열정적인 모습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저를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친 결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수강생이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더불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4. 귀하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문제 발견 계기 및 해결과정, 해결방법 선택이유, 결과를 포함하여 기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전국지도에 LED와 프로그래밍을 통해 발전소의 위치, 발전 방법, 발전 용량을 표시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전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기능전공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했는데, LED 램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선이 있나 찾아보고,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나 바꿔보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날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부회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때 LED를 납땜하다 내부회로가 타버려 수행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아니라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에 납땜해 고정한 모든 LED를 납을 제거해 다른 LED들을 붙였습니다. 완성품은 다행히도 작동했습니다. 늦지 않게 찾은 덕에 시간 내로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고, 발표날에도 어려움 없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입상을 하게 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